

『潮騒』의 연구

- 작품 인물의 심리분석을 중심으로 -

장진수*

I. 서문

미시마 유키오(三島由紀夫)¹⁾는 2차 전후파 작가로서, 동경대학(東京帝大) 법학부 재학 중 고등문관 시험(1947년)에 합격하여 대장성(大藏省)에 근무하다 23세 때 문학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퇴직하고, 모든 정열을 문학에 쏟아 작품에 몰두 하였다. 아사히신문(朝日新聞) 출판국장인 카지류이찌(嘉治隆一, 父의 舊友)의 추천으로 세계여행(1951-52년)을 하였다. 그는 그리스의 고전미를 보고 감탄하였으며, 특히 운동에 의한 건강미를 좋아하였, 정서적인 마음으로 창작하는 것이 그가 추구하는 이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귀국 후 그는 『潮騒』을 집필하였고 약한 체질 이었던 그는 건강과 힘에 대한 동경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작가의 생각이 이 작품 속에 삽입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남자의 힘(力)에 대한 열망을 작품 속에 주입시키려 하였다.

이 『潮騒』는 작가 미시마가 「니이지마(新島)」라는 실제의 섬에 들어가서 섬 주민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집필한 작품이다. 그러면 이 작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8세의 사춘기에 들어간 남주인공 신지(新治)는 그가 처음으로 사랑을 느낀 하쓰에(初江)와의 깊은 사랑에 빠진다. 그런데 이 작은 섬 마을에 살고 있는 가와모토·야스오(川本安夫)는 이 섬에서는 명문 집안이며 비교적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런데 그는 계속 하쓰에(初江)를 좋아하며 끈질긴 프로포즈를 하면서 겁탈하려고 까지 하지만 그녀는 오직 신지만을 사랑한다. 그 결과 그녀는 신의 가호로 신지와 결혼을 성취하게 된다. 이 작품의 플롯을 보면 여주인공 하쓰에를 중심으로 한 신지와 야스오와의 한축을 이룬 삼각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또 신지

* 한국해양대학교 국제대학 동아시아학과 교수

본 논문은 2001년도 한국해양대학교 학술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하였다.

1) 미시마유키오(三島由紀夫 1925-1970): 본명은 히라오카·키미타케(平岡公威)이고 보통 미시마라고 하며, 1925(大正14년)년 1월에 東京市四谷區永住町 二番地の 명문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려서 할머니 밑에서 자라 심리적인 억압을 받았으며, 장편의 소설 『가면의고백(假面の告白)』 『금각사(金閣寺)』 등을 발표하고 작가적 지위를 확립 후 수많은 작품을 남겼다.

는 몸이 건강하고 오직 순수한 어부로서 자기가 태어난 이 섬을 몹시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이 섬 마을에서는 유일하게 동경에 유학하고 있는 등대장의 딸 지요꼬(千代子)는 건강하고 순수한 남 주인공 신지를 사랑한다. 그래서 신지를 중심으로 한 다른 한 축의 지요꼬와 하쓰에와의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다. 즉 이중구조의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형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등장인물의 심리가 잘 나타나 있고 작가가 나타내려고 한 작중인물의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다.

나카니시·노부오(中西信男)씨가 쓴 『나르시즘』이란 저서에서 보면 미시마(三島) 자신은 일찍부터 정신분석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처럼 그의 작품 속에서도 일종의 심리극적인 소설을 볼 수 있다고 적고 있다.²⁾

그래서 필자는 작가 미시마(三島)가 이 『潮騒』작품 속에서 나타내려고 한 인간 심리를 고찰하려고 하고, 이 논문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연구하려고 한다. 첫번째로 애정에 속하는 사춘기에 나타난 사춘기 심리와 두번째로 연애 감정 속에서 나타난 성적 에네르기인 리비도와 수정한 모든 생명 본능의 에네르기인 리비도를 탐구해 보고, 세 번째로 나르시즘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작품 속에서 작가 미시마(三島)가 이상화하여 종교적인 신에 대한 문학작품으로 표현하려고 한 이 작품 속의 인물을 통해서 나타내려는 작중인물들의 심리를 탐구하려고 한다.

본고는 미시마유끼오 전집(三島由紀夫全集) 제9권(신조사(新潮社)간행)을 참고하여 예문을 예시하였으며, 일본문학전집 68, 『潮騒』(三島由紀夫集, 新潮社, 1965)을 비롯한 많은 참고 문헌을 발췌해서 중요한 부분을 인용하여 연구하였음을 밝혀 둔다.

Ⅱ. 본 문

1. 사춘기 이론

사춘기는 인생에서 계절로는 꽃이 만발한 봄에 해당하는 기간으로서, 성인이 되는 준비기간으로 결혼을 위한 남녀들의 사랑이 시작되는 기간을 의미 한다. 또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사회생활로 활동의 영역이 확대되고, 인지능력의 확대에다 추상적인 능력이 확대되어 비판, 비교능력이 생긴다.

또 감정의 폭이 넓어져서 부모님의 사랑에서 이성간의 사랑으로 확대된다. 생리적으로 성숙해지면서 성인으로서의 준비가 시작되며,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

2) 中西信男, 『ナルシズム』天才と狂氣の心理學, 講談社, 1997, p.94

는 능력이 첨가되어 가정을 벗어난 넓은 세계로 뻗어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사춘기라고 할 수 있다.

남자 주인공 신지(新治)는 18세로서 사춘기에 접어들어 애정에 대해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있으며, 이성에 대한 그리움과 말을 걸거나 접촉하고 싶은 사춘기의 심리와 또 이성에 대해 무엇이든 주고 싶고, 육체적으로 접촉하고 싶은 인간의 본능적인 면을 나타내고 있다.

이 작품 속에서 사춘기의 심리적인 면의 용예를 살펴보자.

「若者はわざわざ、少女の前をとほつた。子供がめづらしいものを見るやうに、正面に立つてまともに少女を見た。… 無口な若者は、檢分がすむと足早にそこを立去つた。そのときはただ好奇心を充たされた幸福にぼんやりしてゐて、さて、こんな失禮な檢分が彼のほほに羞恥を呼びました」³⁾

(젊은이는 일부러 소녀 앞으로 째짜게 걸어갔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이 진기한 물건이라도 바라보듯 정면에 서서 똑바로 소녀를 바라보았다…… 말이 없는 젊은이는 검사가 일단 끝나자 총총히 그곳을 떠났다. 그때는 다만 호기심에 찬 행복에 도취되어 있었고, 막상 그런 실례의 검사가 그녀에게 부끄러운 감정을 가져다주었으리라)

신지는 이 좁은 섬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을 거의 알 수 있는데 한번도 보지 못한 소녀가 처음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 소녀 앞으로 가서 어떤 소녀인가 검사를 하며 호기심을 나타낸다. 주인공 신지는 지금이 사춘기이므로 이성간에 서로 호기심을 가지는 것은 일반적인 일로 그는 처음 보는 소녀에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춘기의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それから筋ちがひの願ひのやうですが、いつかわたくしのやうな者にも、氣立てのよい、美しい花嫁が授かりますやうに! … たとへば宮田照吉のところへかへつて來たむすめのやうな」⁴⁾

(그리고, 이젠 또 계통이 좀 다른 부탁입니다만, 언젠가 나 같은 자에게도 마음씨 곱고 아름다운 신부를 얻게 해 주십시오 … 예를 들면 미야다 테루기찌 맥에 돌아온 그런 색시 같은…)

그런데 이 섬마을에서 제일 부자인 테루기찌는 자기 딸들이 모두 출가하였고 아들마저 죽었기 때문에 집에는 아무도 없어 혼자 외롭기 때문에 양녀로 보냈다가 다시 데리고 온다. 테루기찌의 막내딸 하쓰에를 본 후로 신지는 그녀를 연모하게 되었고, 하쓰에 같은 색시를 맞아들이고 싶은 심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렇게

3) 佐伯彰一外 3名 編纂, 『三島由紀夫 全集』 第9卷, 1973. 新潮社, p.13

4) 『三島由紀夫 全集』 第9卷, 前掲書, p.28

해 달라고 신지는 신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다. 사춘기 이론으로 파트너 선택을 하려할 때 신지 자신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それまで貧しいながらも安穩なみちたりた生活を送つてゐた若者は、その日から不安に苛まれ、物思ひに沈むやうになつた。」⁵⁾
 (이때까지 가난은 하지만 평화롭고 만족한 생활을 보내고 있던 젊은이는, 그 날부터 불안을 느끼고 무슨 생각에만 잠기게 되었다..)

데루기찌 영감은 딸 하쓰에가 가난하고 집안도 별로 좋지 않은 신지를 못 만나게 하므로 그는 한창 사춘기 시절에 접어들어 이성에 대한 생리적 반응으로서 집착하게 되었고, 병으로까지 이어지는 심리적 불안이 그에게 나타나고 있다. 즉 그는 이제까지 가난하지만 평화롭게 살아왔는데, 처음으로 하쓰에에 대한 연애 감정을 느끼고 있고, 여기서 신지는 사춘기 때에 너무나 이성에 끌려서 병으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空に氣をとられてゐたので、波がそこまで來て新治の下駄の鼻緒を濡らした。彼の足許には小さな美しい桃色の貝が落ちてゐた。…贈物にしようと思つて、若者はそれをかくしにしまつた。」⁶⁾
 (하늘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 파도가 앞에까지 와 신지의 게다끈을 적시었다. 그의 발밑에는 조그마한 아름다운 조개가 굴러 있었다.……하쓰에에게 선물로 주려고 신지는 그것을 주머니 속에 넣었다.)

주인공 신지는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조개를 줍고 그것을 사랑하는 하쓰에에게 주고 싶은 심리가 나타나 있다. 좋은 것은 모두 이성 파트너에게 주고 싶은 심정,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고, 또 기분 좋게 해주고 싶은 사춘기 이성이 잘 나타나 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신지의 사춘기 이성에 대한 심리이며 그러한 심리가 이 부분에서 잘 나타나 있다.

「少女はまだ乾ききらない白いはだ着ですばやく胸を隠して、かう叫んだ。「目をあいちゃいかんぜ!」忠實な若者は強く目を閉ぢた。…彼は再びその黒い美しい目をぱつちりとひらいた。少女はなす術を失つて、まだはだ着を着ようともしてゐなかつた。もう一度、鋭い清らかな聲で、かう叫んだ。「目をあいちゃいかんぜ!」⁷⁾
 ((신지가 깐 것을 안) 소녀는 아직도 채 마르지 않은 흰 속옷으로 재빨리 가슴을 가리고 이렇게 부르짖었다. 「눈을 뜨면 안돼!」신지는 지긋이 눈을 감았다.…… 그는 다시금 그 겹고 아름다운 눈을 서슴없이 떴다. 소녀는 어쩔 줄

5) 『三島由紀夫 全集』 第9卷, 前掲書, p.35

6) 『三島由紀夫 全集』 第9卷, 前掲書, p.63

7) 『三島由紀夫 全集』 第9卷, 前掲書, p.68

을 몰라 했다. 아직 속옷을 입을 겨를마저도 없었다. 다시 한번 날카롭고 맑은 목소리로 이렇게 부르짖었다. 「눈을 뜨면 안돼!」)

비가 몹시 온 날 신지가 하쓰에와 약속한 장소인 옛날 전쟁 때에 사용하다 버려진 산속의 폐 초소에서 하쓰에를 기다리다 신지는 잠이 들었다. 하쓰에는 그곳에 도착 하였으나 옷이 젖어있었기 때문에 별생각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비에 젖은 옷을 신지가 자고 있을 동안 말리려고 그녀는 옷을 벗고 불에 말리고 있었다. 그 때 신지가 잠깐 눈을 떴을 때, 신지는 처음 보는 사랑하는 여인의 나체를 신비롭게 보려고 하고, 여인은 어쩔 줄 몰라 당황하는 남녀간 이성의 신비로움 그리고, 처음 느끼는 부끄러움과 축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사춘기의 심리를 묘사하고 있다.

「新治は床に坐つて、少女の肩に身を寄せてゐた。着物を着てゐるので、二人は樂に接ふんした。」⁸⁾

(신지는 땅바닥에 앉아 소녀 어깨에 몸을 기대고 있었다. 옷을 입고 있었으므로 두 사람은 손쉽게 키스할 수 있었다.)

하쓰에는 신지에게 자기는 신지의 아내가 되기로 결심하였다고 하며, 매우 도덕적인 말로 결혼 전까지는 남녀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훈계를 하였지만, 인간 본능에 의해 두사람은 꺼안고서 서로 접촉하고 싶은 충동의 가장 쉬운 남녀간의 신체 접촉인 키스를 하는 심리를 나타내고 있다. 사춘기 때의 이성간의 접촉 과정이 라고 할 수 있는 사춘기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2. 리비도 이론

리비도란 생명의 본능이 사용하는 에네르기 형태를 리비도라고 불렀다. 프로이드가 말하는 리비도는 자아가 그 성충동의 대상으로 향한 에네르기를 배급하는 것을 말했고, 그는 초기에는 리비도라는 말로 성적 에네르기를 가리켜서 리비도라고 하였다. 결국 리비도는 성생활의 원동력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동기에 관한 이론을 수정할 때 그는 리비도를 모든 생명의 본능의 에네르기라고 정의하였다.⁹⁾

그래서 1)초기 리비도와 2)이론을 수정한 후의 리비도로 나누어 연구하려고 한다..

1) 초기 리비도

프로이드는 초기에는 성적 에네르기를 가리켜서 리비도라고 하였다.

8) 『三島由紀夫 全集』第9卷, 前掲書, p.73

9) 프로이드의 精神分析入門, 有斐閣新書, 1993, p.132

이 작품에서 용예를 들어 보자.

「新治はすこしも物を考へない少年だつたが、この一つの名前は非常な難問のやうに、彼の心を患はせてやまなかつた。名前をきくだけでほほがほり胸が弾んだ。かうしてじつと坐つてゐるだけなのに、はげしい労働の際にしか見られない變化が起つてくるのは、氣味があるい。」¹⁰⁾

(신지는 좀체 무엇을 생각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이 소녀의 이름만은 대단히 어려운 시험 문제처럼 그의 마음을 번거롭게 했다. 이름을 듣기만 해도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었다.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뿐인데도 심한 노동을 할 때에만 나타나는 그런 변화가 체내에 일어나는 것은 좀 이상하다고 느껴졌다.)

자신이 연모하는 이성의 이름을 들었을 때 생리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을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신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하였다. 좋아하는 사람의 생각에 가슴이 뛰고 호흡이 심해지고 안절부절하고, 생각이 혼란해지고 하는 이러한 신체적 특징은 이성애에 대한 가슴 설레임에서 온 것, 즉 성충동의 대상으로 향한 에너지를 배급하고 있는 사춘기의 리비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임을 신지는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체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즉 이러한 현상은 신지의 자아가 하쓰에게로의 성충동의 대상으로 향한 에너지를 배급하고 있는 사춘기의 리비도임을 말해주고 있다.

「新治の心には、道徳的な事柄にたいするやみくもな敬虔さがあつた。第一彼はまだ女を知らなかつたので、このとき女といふ存在の道徳的な核心に觸れたやうな氣がしたのである。彼は強ひなかつた。若者の腕は、少女の體のすつばりと抱き、二人はお互ひの裸の鼓動をきいた。永い接ぶんは、充たされない若者を苦しめたが、ある瞬間から、この苦痛がふしぎな幸福感到に轉化したのである。」¹¹⁾

(신지의 마음에는 도덕적인 것에 대한 맹목적인 복종이 있었다. 첫째 그는 아직 여자란 것을 몰랐으므로 이때 여자라는 존재의 도덕적인 핵심에 접촉한 듯한 느낌이 든 것이다. 그는 강요하지 않았다. 신지는 소녀의 몸을 꼭 껴안았다. 두 사람은 서로 나체가 된 채 서로의 고동을 들었다. 긴긴 입맞춤은 만족하지 못한 젊은 마음을 괴롭혔지만, 어떤 순간부터 이 고통이 기묘한 행복감으로 변한 것이다.)

아직까지 신지는 도덕적인 면에 복종하였으며 여자를 아직 잘 몰랐었다. 그러나 지금 신지는 하쓰에게 꼭 껴안고 인간의 본능인 리비도를 느끼고 도덕적인 면에서 젊은 마음을 달래고 있다. 이러한 느낌은 신지의 자아가 그 성충동의 대상으로 하

10) 『三島由紀夫 全集』第9卷, 前掲書 p.25

11) 『三島由紀夫 全集』第9卷, 前掲書 p.72

쓰에에게로 향한 에너지를 배급하는 것을 말하고, 성 에너지를 바꿔서 삶의 추진력으로 나가려는 마음가짐을 갖도록 하는 리비도를 나타내고 있다.(“나”21페이지)

「なんだつて逃げるんぢや」「だつて、恥かしいもの」。…そこで話の繼續にこまつて、子供のやうな質問をした。「どうしたら、恥かしくなくなるのやろ」と少女の返事は、實に無邪氣な返事だつたが、おどろくべきものであつた。「汝も裸になれ、そしたら恥かしくなくなるだろ」新治は大そう困つたが、一瞬のためらひのあとで、ものも云はないで丸首のセエタアを脱ぎだした。」¹²⁾
 (「왜 피하는 거야?」「부끄러운 걸 어떡해!」…… 그래 다음 말이 궁해서 어린애 같은 질문을 했다.「그럼 어떻게 하면 부끄럽지 않단 말이야?」그러자, 소녀의 대답은 실로 천진난만한 대답이었지만 놀랄만한 것이었다. 「신지도 옷을 벗으면 부끄럽지 않을 걸」신지는 매우 난처했지만, 순간적인 주저 끝에 말도 없이 셔터를 벗기 시작 했다.)

하쓰에가 비에 젖은 옷을 벗은 채로 옷을 말리는 것을 신지가 보게 되었고, 하쓰에는 부끄러운 자긍심을 보존하기 위하여 신지에게 옷을 벗으라고 말한 부분도 자신의 자신감을 방어해서 자기 보호를 하기 위한 것으로 리비도 이론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신지가 옷을 벗음으로서 하쓰에로서는 서로 부끄러움을 상쇄해 버리고 자연 스럽게 접촉할 수 있게되고 싶은 리비도 이론이며 동일시¹³⁾ 이론을 나타내고 있다.

「少女は胸から下半身を覆うてゐた白いはだ着を背後にかなぐり捨てた。若者はそれを見ると、雄々しく彫像のやうに立つたまま、少女の炎にきらめいてゐる目を見つめながら、下帯の紐を解いた。」¹⁴⁾
 (소녀는 가슴께로부터 하반신을 가리고 있던 흰 속옷을 등뒤로 내던졌다. 신지는 그것을 보자 늠름하게 동상처럼 선채로 하쓰에의 그 불빛에 반짝이고 있는 눈을 바라보며 팬티끈을 끌렀다.)

사춘기 때 남녀간에 처음 느끼는 부끄러움과 신비로움을 함께 나타내고 있으며, 리비도 이론으로 주인공 신지와 하쓰에의 성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初江! と若者が叫んだ。その火を飛び越して来い。その火を飛び越してきたら」少女は息せいてはゐるが、清らかな弾んだ聲で言つた。裸の若者は躊躇しなかつた。…次の刹那にその體は少女のすぐ前にあつた。彼の胸は乳房に軽く觸れた。」¹⁵⁾

12) 『三島由紀夫 全集』第9卷, 前掲書 p.69

13) 동일시 (identification): 동일시를 통해서 는 우리의 무능력에 대한 감정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바람직한 점을 자기에게 끌어들이게 한다.

14) 『三島由紀夫 全集』第9卷, 前掲書 p.70

15) 『三島由紀夫 全集』第9卷, 前掲書 p.71

(「하쓰에!」하고 신지는 떨리는 음성으로 불렀다. 「그 불을 뛰어 넘어 와. 그 불을 뛰어 넘어오면」하쓰에는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지만,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벌거숭이 신지는 주저하지 않았다.…… 다음 찰라 그의 몸은 하쓰에 바로 앞에 있었다. 그의 가슴이 가볍게 유방에 닿았다.)

신지는 하쓰에와 접촉하고 싶고 또 하쓰에도 나체의 신지가 자기 옆으로 가까이 와주기를 바라고 있는 이성에 대한 욕구를 나타내고 있다. 또 신지는 그전에 하쓰에가 폐 초소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었을 때 입었던 빨간 쉼타 속의 하쓰에의 유방을 생각하고 짜릿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이성에 약한 욕구의 결합이 나타나 있으며 생명본능인 에네르기로 리비도 이론을 나타내고 있다.

「松葉が痛うて」と少女が言つた。手をのばして白いはだ着をとつた若者はそれを少女の背にしかうとしたが、少女は拒んだ。初江の兩手はもはや若者を抱かうとはしなかつた。…さうして初江が言つたのは、道徳的な言葉である。「いらん、いらん。…嫁入り前のむすめがそんなことしたらいかんのや」¹⁶⁾
(「술잎이 따가워」하고 하쓰에가 말했다. 손을 뻗쳐 흰 속옷을 집은 신지는 그것을 하쓰에의 등 밑에 깔려고 했으나 하쓰에는 그것을 거부했다. 하쓰에의 두 팔은 이미 신지를 안으려 하지 않았다.……그리고는 하쓰에가 말한 것은 매우 도덕적인 말이었다.「안돼, 안돼… 시집가기 전에 그런 짓 해서는 안돼」)

폐 초소에서 하쓰에는 신지가 불을 넘어 오라고 하므로 나체가 된 두사람은 꺼안고 하쓰에가 먼저 부드럽게 쓰러졌다. 그때 신지는 남성적인 욕구를 충족하려고 하지만 하쓰에는 완강하게 반대하고 도덕적인 이유를 내세워 자기 몸을 지키려고 한다. 동물적 욕구로 승화하는 성욕구를 콘트롤 하는 리비도를 나타내고 있다.

2) 수정 리비도

프로이드는 동기에 관한 이론을 수정할 때 그는 리비도를 모든 생명의 본능의 에네르기라고 하였다. 그는 리비도를 성 본능 에네르기로 정의하고 인간을 움직이는 원동력, 삶의 핵심 에네르기, 삶의 추진력으로 보고 있다.

이 작품에서는 주인공 신지의 활력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생명의 본능의 에네르기인 리비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용예를 들어 보자.

「…そのふしぎな不安は、今朝もまだつづいてゐる。しかし新治の立つ触先の前には、廣大な海がひろがつてをり、その海を見ると、日々の親しい労働の活力が身内にあふれて来て、心が安まるのを覺えずにはゐられない。」¹⁷⁾

16) 『三島由紀夫 全集』第9卷, 前掲書 p.71

(그런 이상한 불안은 오늘 아침도 아직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신지가 서 있는 뱃머리 앞에는 광대한 바다가 펼쳐져 있으며, 그 바다를 보면 나날의 친근한 노동의 활력이 체내에 넘쳐흘러 마음이 차분히 가라앉음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신지는 그 이상한 불안은 섬에서 일어난 불안을 바다로 나가 안정을 찾으려 하고 있다. 즉 섬에서 바다로 투사¹⁸⁾한 것이며, 또 성적 욕구를 그 소녀에게 투사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미 신지의 마음속에 있는 하쓰에에 대한 연모가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그 소녀에게로 행하게 되므로 그 소녀가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생각이 신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한 것이고, 불안하게 한 것이다. 그리고 또 바다가 신지에게 삶의 리비도를 나타내어 활력을 넘쳐흐르도록 하여 삶의 추진력으로 바꾸어주고 있다.

「彼は腕に力が充ち、體に生甲斐がみなぎるのを感じた。」¹⁹⁾(132 페이지)
(그는 팔뚝에는 힘이 넘쳤고 몸 전체는 사는 보람이 용솟음쳐 끓어오름을 느꼈다.) (68 페이지)

하쓰에의 아버지 데루기씨는 온 마을에 신지와 하쓰에의 관계가 소문으로 퍼져 나간 후 두사람을 떼어놓으려고 하쓰에를 문밖 출입을 못하게 하므로, 신지는 하쓰에를 만날 수조차 없으므로 그는 바다로 나가서 그의 사춘기 때의 마음을 풀려고 한다. 신지의 사춘기는 사춘기의 특징인 신체의 성숙을 의미하며,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을 말하고 있다. 또 성적 욕구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몸의 골격이 커지고 근육이 어른 근육이 되어 힘이 증가하고 신체적 에너지가 최대가 된다. 이때 느끼는 신체적 에너지의 용솟음은 수정된 리비도 이론을 나타내며, 이 세상에서 두려움이 없고 안되는 일이 없다는 신지의 이상과 모험에서 볼 수 있는 것이다.

「怖ろしい力が若者の腕にかかつた。波を切らうとするその腕を、見えない棍棒のやうなものが打ち据ゑた。彼の體は心ならず漂ひ、力が波とけつかうしてかみ合ふかと思へば、油に足をとられるやうに力が徒に働らいた。…すると今度は幸ひな波が、胸をほとんど浮標にぶつけるばかりに、一息に彼を運んで、浮標に一氣によちり登らせた。新治は深い息をした。」²⁰⁾
(놀라운 힘이 젊은이 팔에 와 닿았다. 파도를 헤치려는 그의 팔을 보이지 않

17) 『三島由紀夫 全集』第9卷, 前掲書 p.17

18) 투사(projection):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옳지 못한 충동이나 욕구를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전가시킴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그러한 옳지 못한 욕구나 충동을 갖고 있다고 비난함으로써 자기에 대한 긴장상태의 불안한 결함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다.

19) 『三島由紀夫 全集』第9卷, 前掲書 p.132

20) 『三島由紀夫 全集』第9卷, 前掲書, p.142

는 장작개비 같은 것이 넓다 후려쳤다. 그의 몸은 뜻하지 않게 떠들고, 힘이 파도와 대항해 보려고 하지만, 기름바닥에 발이 미끄러지듯 그 힘은 헛되이 움직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요행 파도가 가슴을 거의 부표에 부딪치게 할 만큼 단숨에 그를 실어다 부표 위에 기어오르게 했다. 신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하쓰에 아버지 데루기씨는 하쓰에가 신지를 너무 좋아하므로 할 수 없이 자기 배에 신지와 야스오를 함께 태우고 두사람의 능력을 시험하도록 자기배인 우다지 마호의 선장에게 부탁하게 된다. 배는 화물을 싣고 멀리 오끼나와까지 갔다가 폭풍우를 만나서 다시 회항하고 있다. 그런데 폭풍우라는 대자연의 힘 앞에서 아무리 철기왕성한 청년일지라도 무력해지는 대자연의 법칙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 하지만 신지는 이제 한창 사춘기 후기 단계에서 체력과 근육이 최고가 되었을 때, 신지의 활력은 자신만만하게 삶의 원동력과 에너지로 바뀌는 수정 리비도 이론으로 신지는 폭풍우 속에서 바닷속으로 뛰어 들어 배를 구하려고 파도를 헤치고 부표에 생명줄인 로프를 걸어 배를 구하는 성과를 이룬다.

「快活きの本能が蘇り、衰へてゐた氣力が新たに湧いた。あらしにむかつて、思ふさま息を吸ふと、彼は歸路の海に跳び込んだ。」²¹⁾
(쾌활한 본능이 다시 소생하고 힘든 작업으로 소모된 기력이 새로 솟아났다. 폭풍을 향해 마음껏 숨을 몰아쉬고 나서 그는 귀로의 바닷속으로 뛰어 들었다.)

폭풍우가 몹씨 붙어 칠 때 선장은 야스오에게 바닷 속으로 들어 갈 것을 부탁하였지만 들어가지 못하므로 신지가 자진하여 그 일을 하겠다고 바다에 뛰어들어 자신의 말은 일을 완수함으로써 동료들에게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이제 자신감이 온몸에 넘쳐흐르게 된 것이다. 아무도 감히 도전하지 못한 일을 자신이 했다는 삶의 에너지기인 수정 리비도를 나타내는 자부심이 이제 자신에게 넘쳐흐르는 삶이 자신감과 자긍심을 갖게되어 용기가 백배충천하게 되었다.

「男は氣力や、氣力があればええのや、この歌島の男はそれでなかいかん。家柄や財産は二の次や。さうやないか、奥さん。新治は氣力を持つとのや。」²²⁾
(사나이는 뭐니뭐니 해도 기력이 제일이야. 기력만 있으면 그만이요. 이 우다지마의 사나이에겐 그것이 없으면 안돼. 집안이나 재산같은 건 그 다음 문제지. 그렇지 않소? 부인, 신지는 기력을 갖고 있소.)

21) 『三島由紀夫 全集』 第9卷, 前掲書, p.144

22) 『三島由紀夫 全集』 第9卷, 前掲書, p.154

신지가 항해에서 배를 구해 낸 후 하쓰에 아버지인 데루기찌는 신지의 용기와 힘에 감명을 받고 그를 인정하게 된다. 그래서 그는 사나이는 재산이나 부귀보다도 신체적인 힘이 있어야 하며 용기가 있어야 하고 성욕구가 강해야 한다는 수정 리비도의 생명본능의 에너지를 강조하게 된다. 마침내 신지는 이 우다지마 섬에서 가장 기력이 센 사나이로 알려지고 데루기찌 영감이 그를 사위감으로 마음속으로 정한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인연을 맺어주기로 자기를 설득하려 온 동래 부인들에게 사나이는 뭐니뭐니해도 기력이 제일이라는 등 그와 같은 말을 한다.

「少女の目には矜りがうかんだ。自分の寫眞が新治を守つたと考へたのである。しかしそのとき若者は眉を聳やかした。彼はあの冒険を切り抜けたのが自分の力であることを知つてゐた。」²³⁾

(하쓰에의 눈에는 긍지가 있었다. 자기의 사진이 신지를 지켜 주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러나 이때 신지는 눈썹을 치켜세웠다. 그는 저 모험을 돌파한 것이 자기 힘이란 것을 알고 있었다.)

하쓰에는 신지가 데루기찌의 배에 승선하여 먼 뱃길을 떠날 때 자기 사진을 주었다. 무사하게 잘 다녀오기를 기원하기도 하고 또 항해 시험 중에 모든 일이 잘 되도록 기원하며 사랑을 전해주는 마스크트 표시의 의미로 준 것이다. 그래서 하쓰에의 사진이 신지를 지켜주었다고 하쓰에는 생각한 것이다. 그런데 그 보다는 더 큰 것은 이제 신지는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신지는 여러가지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면서 이제 점점 삶에서 자신감을 쌓아갔고 수정 리비도의 생명 본능의 에너지를 삶의 핵심에너지이고, 삶의 추진력인 신지의 자긍심은 점점 더욱 커져갔다. 이것은 신체적 힘과 비례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과 용기를 더 붙여주는 자긍심을 얻었다는 것이다.

3. 나르시즘

나르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도착 심리에 관해서 사용된 단어이고 이 도착 심리는 보통 자신 이외의 성적대상에 집중시키는 것 같은 모든 상냥함, 훌쩍 반함, 동정심을 자기 본인의 육체를 향해서 행해지는 말하자면 일종의 도착한 성애로서의 자체애의 의미이다. 프로이드는 단지 자기 육체의 애착뿐만 아니고, 그것은 이 자체애와 한 개로 통일해서 연속한 개체인 자기에게 향한 리비도의 애착(자기애)이고, 다음에 대상애로의 리비도가 발달하는 그 중간 단계인 리비도의 위치를 나르시즘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나르시즘은 이상한 심리상태는 아니고, 일반적 또는

23) 『三島由紀夫 全集』第9卷, 前掲書, p.161

근원적인 리비도 발달이 있는 단계이라고 발달적인 관점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있다.²⁴⁾

나르시즘적인 인물들의 용례를 들어 보자

「支部長の川本安夫の來るのを待つてゐる。まだ十九歳だが、安夫は村の名門の生れで、人を引きずつてゆく力を持つてゐる。その年でもう賈祿をつけることを知つてゐて、集まりには必ず遅れて來るのでまる。」²⁵⁾

(지부장인 가와모도야스오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나이는 아직 열 아홉밖에 안되었지만 야스오는 마을 명문 태생으로 사람을 통솔하는 힘을 갖고 있었다. 그 나이에 벌써 관록을 부릴 줄 알아 집회 때는 반드시 느지막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남주인공 신지의 라이벌 상대인 야스오는 모임에서 언제나 자기의 관록을 지키려고 마을 청년 여러 사람이 모두 모인 다음에 나타나서 언제나 자기가 지부장인 것을 과시하고 있다. 나이는 아직 어리지만 통솔하는 힘과 자기의 관록을 지키려 하는 야스오의 나르시즘적인 성격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행동은 잘난 체하는 야스오가 자기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하나의 제스처(ゼスチュア)인 것이다.<“나” 431페이지>

「照吉は歌島の、この島の労働と意志と野心と力との、權化だといつてもよかつた…年をとつても衰へないけんかつ早さなどで差引かれたが、とにかくこの老人は生きてゐるうちから、萬事銅像のやうに振舞つてをかしくなかつた。」²⁶⁾

(테루기찌는 이 우다지마 섬의 노동과 의지와 야심과 힘의 화신(化身)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늙었어도 특하면 싸움 잘하는 것 등으로 많이 깎아 엮었지만, 어쨌든 이 노인은 생존시에 이미 동상처럼 행동해도 어색하지 않았다.)

여주인공 하쓰에를 가장 보호하고 장래를 생각하여 신지와 의 연인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테루기찌의 오만한 성격을 잘 말해주고 있다. 또 과거 젊었을 때는 힘과 정력으로 모든 일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루어 졌으며, 잘 난 체하고 오만한 이와 같은 성격과 행동은 테루기찌의 나르시즘적 성격으로 현재는 늙어서 과거 젊었을 때처럼 잘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과거의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화려했던 그의 경력에 비해 현재의 그의 현실에 대한 열등감을 방어하기 위한 나르시즘의 방어기제를 나타내고 있다.

24) 프로이드의 精神分析入門, 小此木啓吾, 有斐閣新書, p.133

25) 『三島由紀夫 全集』第9卷, 前掲書, p.25

26) 『三島由紀夫 全集』第9卷, 前掲書, p.96

「安夫はみんなに自慢してゐる夜光時計をもつてゐた。その晩はこれを腕にはめたままにして、こつそりジャンパアにズボンのまま床に入った。…こんな時計をもつてゐるだけで安夫は十分女にもてる資格があるやうな氣がした。」²⁷⁾
 (야스오는 동무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야광시계를 갖고 있었다. 그날 밤은 이것을 팔목에 찬채 잠바에다 양복바지를 입은 채로 자리에 들어갔다.……이러한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충분히 여자를 정복할 자격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 섬 마을은 물이 귀하여 하쓰에가 물을 길르는 당번인 것을 알고, 그는 그날 밤 야간에 하쓰에를 범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잠을 설치가면서 여자를 정복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

야스오는 형광 팔목시계가 귀하던 시대에 그가 형광시계를 자랑하고, 그리고 은근히 자신의 가정적인 부유함과 가족을 내세우는 것은 자기 열등의식에서 온 것으로 용기와 패기로는 신지를 당할 수 없으므로 일종의 자기 방어로서 잘 난채하는 나르시즘 성격의 소유자인 그는 자신의 환경적 부분을 부각시켜 하쓰에에게 접근하려는 전략적인 심리이다.

「どうせ俺は、島へかへつたら照やの婿になるでなア。そしたら、この船は俺のもんや」水夫長は激怒したが、萬一さういふ成行になるのを慮つて、それからは正面切つて安夫を叱らずに、この不ていな新參の返事を同僚に囁いた。結果は却つて安夫の不利になつた。」²⁸⁾

(「어차피 난 섬에 돌아가면 데루영감의 사위야. 그렇게 되면 이 배는 내 소유가 된단 말이야!」 수부장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만일에 일이 그렇게 될 것을 염려하여 그후부터는 정면으로 야스오를 야단치지 못하고, 이 건방진 신참의 대꾸를 동료들에게 하소연하였다. 결과는 도리어 야스오에게 불리하게 되었다.)

전형적인 나르시즘적인 야스오의 성격으로 아직 데루기씨는 야스오를 사위로 정하지도 않았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를 귀찮게 하는 수부장에게 자기는 이 항해가 끝나고 섬에 돌아가면 이 선박 주인인 데루기씨의 사위가 될 것이라고 말하여 그 수부장은 머리끝까지 화가 났고 수부장은 동료들에게 하소연 하여 오히려 야스오가 동료에게 따돌릴을 당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즉 그는 전형적인 나르시즘 성격으로 대인관계가 잘 안되고 적당한 성취가 없는데도 인정받으려고 하며, 성취 재능을 과장하고 있다. 그리고 무제한의 성취, 권력, 아름다움, 이상적 사랑에 환상적으로 집착하려 하며. 또 자신의 문제는 특별함으로 특별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고 있다.

27) 『三島由紀夫 全集』 第9卷, 前掲書, p.80

28) 『三島由紀夫 全集』 第9卷, 前掲書, p.136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다른 대우를 요청하며, 또 칭찬에 목말라 하고 있고, 관심과 존경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느끼는지 공감할 능력이 부족한 야스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나르시즘적인 성격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다.

4. 이상화

외부 대상을 완전히 좋게 보는 것은 자신의 나쁜 부분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이다. 이것은 완전히 좋은 것의 질(all good)을 병적으로 증가시킴으로서 비현실적인 이미지를 창조하고 전지전능한 인물로 취급하여 완전히 의존하는데 기여한다. 대상을 자신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완전히 나쁜 이미지에 대항하는 강력한 동반자로 본다. 외부 대상은 자신의 공격으로 오염될 수 없고 파괴될 수 없다. 완전히 좋은 대상이 오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준다. 이상화를 사용하는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이상적인 대상에게 매달리는 것처럼 보인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차가운 적대적인 환경으로부터 보호해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지속적인 자기 속임수와 자신에 대해 대상을 속임으로써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느낀다. 만약 대상이 자신에 대해 느끼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자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상화의 심층에는 그 대상에 대한 집착적 두려움과 원시적 공격 감정이 숨어 있다. 대상을 이상화시켜서 대상이 자신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행동해 주기를 기대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²⁹⁾

그러면 이 작품에서 이상화의 용예를 들어보자.

「八代神社は錦津見命を祀つてゐた。この海神の信仰は、漁夫たちの生活から自然に生れ、かれらはいつも海上の平穩を祈り、もし海難に遭つて救はれれば、何よりも先に、ここの社に奉納金を捧げるのであつた。」³⁰⁾

(야시로 진자는 와다쓰미노미코도(綿津見命)를 모시고 있다. 이 해신(海神)에 관한 신앙은 어부들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나 그들은 언제나 바다의 평온을 빌며, 간혹 풍랑을 만나 살아 나오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진자에 다 봉납금(奉納金)을 바치는 것이었다.)

심 사람들이 해신당을 모셔놓고 봉납금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는 것은 대자연의 힘 앞에 나약한 자기 자신을 방어하고 전지전능한 신에게 의존해서 나를 낮추는 것도 전지전능의 방어의 한가지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들은 내 자신이 겸손해

29) 김종만, “나” 자아의 성장과 발달, 함림미디어, 1999, p.607

30) 『三島由紀夫 全集』第9卷, 前掲書, p.10

지고 욕심을 부리지 않고 자연이 주는 대로 불평하지 않고 이 섬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해신을 믿고, 풍량이 일지 않도록 바라며 혹시 풍량이 일어나서 살아오면 그것을 해신의 은총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을 이상화하고 있다.

「神々はおねがひしたことをことごとくかなへて下さつた、と若者はまた心に幸福を呼びかへした。二人は永く祈つた。そして一度も神々を疑はなかつたことに、神々の加護を感じた。」³¹⁾

(신지는 신이 자기의 청원을 모두 이루어 주었다고 마음속으로 감사했으며 행복함을 느꼈다. 두 사람은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다. 그리고는 한 번도 신들을 의심해 보지 않은 거기에 신들의 가호를 느끼었다.)

주인공 신지는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기도를 하고 신의 가르침대로 소박하게 욕심을 버리고 대자연에 순응해서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의 결실을 얻은 것으로 믿고 있는 두 사람은 그들의 순수함을 승화시켜 대자연 속에서 울어러 보고 하늘에 감사했다.

한번도 원망하지 않고 자연을 사랑해 왔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 성취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도 소박하게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대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전지전능함을 이상화한 방어이론을 나타내고 있다. 두 사람은 한번도 신들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今にして新治は思ふのであつた。あのやうな辛苦にもかかわらず、結局一つの道徳の中でかれらは自由であり、神々の加護は一度でもかれらの身を離れたためしはなかつたことを。つまり闇に包まれてゐるこの小さな島が、かれらの幸福を守り、かれらの戀を成就させてくれたといふことを。…」³²⁾

(지금 신지는 생각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의 도덕 안에서 그들은 자유이며, 또한 신의 가호는 한 번도 그들의 몸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점을.)

이성과 이루어지지 않았던 갈등 속에서도 욕심을 내지 않고 상대를 파괴하거나 경쟁에서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를 기만하지 않고 내 분수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음은 오직 신의 가호 때문이었다고 믿고 있다. 신의 가르침에 역행하지 않아야 앞으로도 소망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어른들의 말씀대로 따르고 자연을 숭배하고 존경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자연을 숭배하고 순응하는 이상화 이론이다.

31) 『三島由紀夫 全集』第9卷, 前掲書, p.156

32) 『三島由紀夫 全集』第9卷, 前掲書, p.160

「自然も亦、かれらに恩寵を垂れてゐた。昇りきつて伊勢海をふりかへる。すると夜空は星に充たされ、雲といへば知多半島の方角に、ときどき音のきこえない稲妻を走らせてゐる低い雲が横たはつてゐるだけであつた。潮騒も烈しくはなかつた。海の健康な寢息のやうに規則正しく、寧らかにきこえた。」³³⁾
 (대자연도 역시 그들에게 은총을 내리고 있었다. 계단을 다 올라서서 이제 바다를 돌아다 본다. 그러자 밤하늘은 별로 가득 찼고, 구름이라고 하면 오직 지다(知多)반도 쪽에 때때로 소리 안나는 번갯불을 번쩍이고 있는 낮은 구름이 끼어있을 뿐이었다. 해조음(밀물) 소리도 높지 않았다. 건강한 숨소리처럼 규칙적인 바닷소리는 평화롭게 들려왔다.)

신지와 하쓰에는 지금까지 순수한 삶을 살아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가려고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에게 신의 은총이 내려졌다, 또 나보다 너를 우선하고 자연의 가르침, 즉 어른들의 가르침에 순종해 온 자신들이었고 더구나 대자연의 법칙에 순응하고 부끄러워할 일은 하지 않고 소박하게 살아온 것을 이상화 하였으며 전지전능화한 신들께서 그들에게 소망을 충족시켜 준데 대하여 고마움을 찾으려고 하는 방어이론을 나타내고 있고 밤하늘은 별로 가득 찼고, 해조음 소리도 높지 않았다.

Ⅲ. 결 론

작품 『潮騒』에서 인물들의 심리분석을 연구하려고 하였으며, 필자는 이 작품 내용 속에 등장한 인물들의 심리상태를 분석하여 보았다.

첫 번째로 인생에서 황금기인 사춘기의 남 주인공인 신지가 아주 살기 좋은 섬 마을에서 낯선 여주인공 하쓰에를 처음 만나보고 호기심을 자극하게 된다.

그리고 그는 그녀를 못잊어 병이 날 만큼 생리적 반응이 나타났고, 그리고 우연하게 만나서 이성간의 신비로운 접촉을 시도하려는 사춘기의 이론을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로 신지는 소녀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 옛날 전쟁에서 사용하다 방치된 산속의 폐초소에서 신지는 잠깐 잠이 들었고, 그 때 하쓰에는 나체로 된 채 비에 젖은 옷을 말리고 있었다. 신지가 눈을 떴을 때 하쓰에는 신지에게 부끄러움을 상쇄하기 위해 옷을 벗으라고 말하고, 그는 하쓰에를 껴안고 키스를 한다. 이때 남녀가 처음으로 느끼는 성욕구가 일어난다. 신지의 자아가 하쓰에에게로의 성적 에너르기가 성충동 대상의 에너르기로 배급하는 리비도 심리가 일어난 것이다.

또한, 신지는 자기의 불안을 바다로 투사하고, 성적 욕구를 하쓰에에게 투사하

33) 『三島由紀夫 全集』第9卷, 前掲書, p.156

여 삶의 원동력인 활력을 나타내는 프로이드의 생명 본능의 수정 리비도의 심리도 나타나고 있다.

세 번째로 네가티브적인 라이벌인 야스오는 자기 관록을 지키려고 모임에 일부러 늦게 나오거나, 형광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고, 이러한 시계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여자를 정복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르시즘적인 야스오는 용기와 패기로는 신지를 당할 수 없음을 느낀다.

또한 하쓰에의 아버지인 데루기씨는 신지와 하쓰에가 사귀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또 과거 젊었을 때 싸움을 잘 하여 자기가 하고 싶은 데로 한 오만한 나르시즘의 성격이 나타난다. 이와 같이 야스오와 데루기씨의 나르시즘적인 성격의 인물을 등장시켜서 이 작품 속에 언제나 네가티브적인 행동을 하는 인물로 만들어 작품구성을 만들고 있다.

마지막으로 섬 사람들은 모두 신에게 봉납금을 바치고, 또 해신(海神)에게 어부의 안전을 빌거나 기도를 드려서 신의 가호를 받고자 하는 신들의 전지전능함을 이상화시키고 있다. 또 신지와 하쓰에는 자신들의 희망을 들어달라고 전지전능하신 신에게 기도하는 이상화가 나타난다. 그래서 신지와 하쓰에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도 전지전능한 신의 가호에 대한 경외스러움과 대자연에 순응하라는 대자연 법칙에 대한 이상화를 나타내고 있다.

필자는 이 작품을 심리학적으로 분석하여 본 결과 외딴 조그만 섬에서 대자연에 순응해서 소박하게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원초적인 모습과 행복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삶이 잘 묘사되어 있었으며 또 현대인들의 탐욕적인 가치관과 정신적인 황폐화 속에서 현대인의 가슴속에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일깨워 주는 작가의 의도가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소 차이가 있으나 거의 공통적으로 삶에 의 한 희로애락이 있었다. 또 인간은 올바르게 살아야 하며, 남자는 힘이 있어야 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여자는 정숙하고 절개를 지켜야 하며, 한 남자를 위해 모든 정성을 쏟아야 한다는 동양적인 사고의 심리를 알 수 있었다.

종교에서 나타난 권선징악의 심리를 파악 할 수 있었으며, 후세에도 이러한 사상이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환경 친화적인 생활을 해야만 한다는 바램이 이 작품 속 인물들의 심리란 점을 탐구할 수 있었다.

參考文獻

- 佐伯彰一外 3名 編纂, 『三島由紀夫全集』第9卷, 新潮社, 1973
中西信男 天才と狂氣の心理學、ナルシズム、講談社, 1997
小此木啓吾・馬場謙一編, 有斐閣新書,フロイト精神分析入門, 1999
北恒隆一, 三島由紀夫の精神分析、北澤圖書出版, 1982
緒彦直樹, 文藝春秋, ペルソナ三島由紀夫傳, 1999
三島由紀夫, 潮騒, 新潮文庫, 1995
小此木啓吾, フロイト, 講談社, 1992
松本徹, 三島由紀夫, 河出書房新社, 1990
崔正薰外 4名, 心理學, 法文社, 1990
김종만, 나 -自我의 成長과 發達 -, 한림미디어, 1999



■要旨

『潮騒』의 연구

- 작품 인물의 심리분석을 중심으로 -

장진수

歌島と言う小さな島で男の主人公の新治が初江に偶然初めて會った後、好奇心を刺戟する思春期の心理をもつておたがいを愛するようになる。性の衝動の對象にかた向けるエネルギーを配給している初期の性的エネルギーをフロイト(Freud)はリビトというのであった。ところで、男主人公の新治は腕に力が溢れて、體の全體はいきる甲斐で湧き上がる人間を動く生の核心エネルギー、生の推進力がある修正リビトの状態をもつ男だった。それで、この作品は男は力をもっているべきだということを強調している。

なお、安夫はこの島の中では名門家の生れで、いつもいばり、リーダーシップをもっているナルシズム的なので、初江をあんまり好きなので劫奪しようと思ったが失敗する。このように新治と安夫と初江の三角關係の構造をなしている。また、この島の村では唯一東京に留學している燈臺長の嬢の千代子とは男主人公の新治と初江との二重の三角關係をなしているプロット(Plot)になっている。女主人公の初江の父である照吉も若い時は力と精力で全ての仕事を自分がしたいままやって、他人とけんかをするをよくなるそんなナルシズム的な性格をもっていた。ところで、初江は新治と戀愛するというわさが全村中に廣がって父である照吉に多くの試練をためされていて、神の加護で二人は結婚させるようになったという内容である。

理想化というのは對象を理想化するようになって自分が願うまま行動してくれることを期待するのを言うのに、この作品の中で、新治と初江は神に熱心に祈禱した結果、神と宗教的な力によって二人は愛のために全ての苦難に耐えて、結婚するようになるという作品である。こんな『潮騒』の作中の人物の心理を分析して觀察したい。

